

2018년 8월 23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정치 불확실성 여파로 혼조 마감 연준, 무역분쟁 우려 불구하고 금리인상 의지 표명

FOMC 의사록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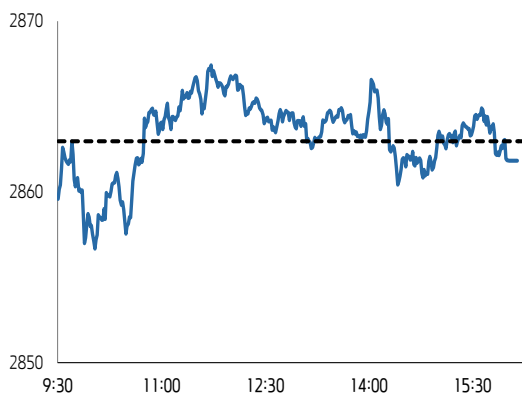
미 증시는 정치 불확실성 및 EU 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출발. 그러나 국제유가가 원유재고 감소에 힘입어 급등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 한편, 연준이 무역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변화는 크지 않음. 업종별로는 IT, 에너지 업종이 상승한 반면, 통신, 산업재 등은 하락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특징(다우 -0.34%, 나스닥 +0.38%, S&P500 -0.04%, 러셀 2000 +0.26%)

미 증시는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회담에 대한 관망세가 짙은 양상. 한편, 트럼프가 EU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언급하는 등 여전히 무역분쟁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양상.

이런 가운데 지난 8 월 1 일 있었던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 연준은 미국과 무역 상대국간의 긴장 관계에 대해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중요한 요인” 이라고 발표. 더불어 “투자 및 고용 등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 성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주장. 또한 “광범위한 관세 인상은 가계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며 우려를 표명.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생산성 감소와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언급. 한편, 연준은 무역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적절한 통화정책 대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장과 인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표명. 이렇듯 무역분쟁과 관련해 미 연준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

다만, 연준은 무역분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9 월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정책 우려를 우회적으로 비판. 또한 2019 년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하고 인플레이 전망은 소폭 하향.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주식시장은 하락전환 했으며, 달러화도 변동성을 키웠으나 그 폭은 제한. 시장은 23 일 있을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과 미-중 무역분쟁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 유지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73.33	+0.14	홍콩항셱	27,927.58	+0.63
KOSDAQ	785.95	-0.15	영국	7,574.24	+0.11
DOW	25,733.60	-0.34	독일	12,385.70	+0.01
NASDAQ	7,889.10	+0.38	프랑스	5,420.61	+0.22
S&P 500	2,861.82	-0.04	스페인	9,580.20	+0.33
상하이종합	2,714.61	-0.70	그리스	719.46	+2.02
일본	22,362.55	+0.64	이탈리아	20,699.70	-0.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업종 상승세 유지

NVIDIA(+3.75%)는 전일 세계 최대 게임 박람회인 'Gamescom 2018' 에서 그래픽 카드를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GPU 기반의 딥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영향을 줬다. 반면, 경쟁사인 인텔(-1.20%)은 하락 했다. 한편, 마이크론(+0.60%)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영향을 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0.61%)도 동반 상승 했다. 최근 부진했던 알파벳(+0.36%), 페이스북(+0.59%), 아마존(+1.14%), MS(+1.02%) 등 대형 기술주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한편,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소매유통업체인 타겟(+3.21%)과 주택인테리어 업체인 로이어(+5.80%)는 상승 했다. 엑손모빌(+1.43%), 코노코필립스(+1.57%), 셰브론(+0.83%)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 반면, AT&T(-2.16%), 버라이즌(-1.40%) 등 통신업종과 넥스테라에너지(-0.53%) 등 유틸리티 업종 등 경기 방어주는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10%	대형 가치주 ETF	-0.28%
에너지섹터 ETF	+1.50%	중형 가치주 ETF	-0.21%
소매업체 ETF	+0.06%	소형 가치주 ETF	+0.04%
금융섹터 ETF	-0.28%	배당주 ETF	-0.54%
기술섹터 ETF	+0.30%	변동성 ETF	-1.45%
소셜 미디어업체 ETF	+1.01%	대형 성장주 ETF	+0.23%
인터넷업체 ETF	+0.80%	중형 성장주 ETF	+0.23%
리츠업체 ETF	-0.62%	소형 성장주 ETF	+0.45%
주택건설업체 ETF	+0.33%	신흥국 고배당 ETF	+0.51%
바이오섹터 ETF	+0.71%	신흥국 저변동성 ETF	+0.37%
헬스케어 ETF	+0.13%	하이일드 ETF	+0.03%
곡물 ETF	+0.64%	물가연동채 ETF	+0.22%
반도체 ETF	+0.37%	Long/short ETF	-0.6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46.93	+1.20%	+3.27%	-2.94%
소재	368.52	-0.45%	+2.02%	-0.66%
산업재	642.60	-0.93%	+2.23%	+1.52%
경기소비재	909.36	+0.12%	+2.21%	+1.58%
필수소비재	556.09	-0.63%	+0.76%	+2.27%
헬스케어	1,057.21	+0.11%	+1.71%	+3.00%
금융	468.82	-0.26%	+1.93%	+0.53%
IT	1,284.25	+0.48%	+0.84%	-1.92%
통신	155.75	-2.02%	+1.09%	+7.83%
유틸리티	270.14	-0.78%	-0.35%	+1.96%
부동산	205.81	-0.65%	+0.16%	+2.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업종별 차별화 이어질 듯

MSCI 한국 지수는 0.23% MSCI 신흥 지수도 0.79%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632 계약)에 힘입어 1.30pt 상승한 294.6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6.9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이어가며 상승 했다.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 했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0.46% 상승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오늘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전일 N 비디아는 세계 최대 게임 박람회인 'Gamescom 2018' 에서 그래픽 카드를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3.1% 급등 한 점도 관련 업종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정치 불확실성은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일부에서는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 탄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정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원에서는 과반, 상원에서는 2/3 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발 정치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국 정치 불확실성 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분쟁 관련 협상 결과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준 등 주요 기관이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협상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법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기대감이 높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둔화

미국 7 월 기준 주택 판매건수는 지난달(538 만건) 보다 둔화된 534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5% 감소했다. 한편, 중간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4.5% 상승한 26 만 9,600 달러로 상승세는 이어가는 양상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 힘입어 급등 했다. EIA 는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583.6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149.7 만 배럴 감소) 보다 감소폭이 컸다. 가솔린 재고는 120 만 배럴 증가해 시장 예상치(48.8 만 배럴 감소)와 달리 증가 했다. 다만, 정제유 또한 184.9만 배럴 증가해 수요 부진은 이어갔다.

달러지수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미국 정치 불확실성 증가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다만, 유로화가 터키의 통화 위기로 인한 전이 가능성과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여파로 달러 대비 강세폭이 제한되자 달러화의 약세는 제한 되었다. 한편,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달러화는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약세폭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9 월 금리인상 의지 표명에 힘입어 재차 약세폭이 축소되는 등 변화를 보인 점도 특징이었다. 한편, 멕시코 폐소화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달러 대비 1% 넘게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더불어 연준이 FOMC 의사록을 통해 2019 년 인플레이 압력을 하향 조정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와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및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EU 무역분쟁 우려로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소폭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1%, 철근도 0.71%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7.86	+3.07	+5.27	Dollar Index	95.079	-0.19	-1.67
브렌트유	74.78	+2.96	+5.68	EUR/USD	1.1599	+0.24	+2.24
금	1,203.30	+0.27	+1.54	USD/JPY	110.55	+0.22	-0.17
은	14,850	-0.07	+2.07	GBP/USD	1.2916	+0.12	+1.72
알루미늄	2,065.00	+0.51	+1.98	USD/CHF	0.983	-0.25	-1.07
전기동	6,005.00	-0.66	+3.52	AUD/USD	0.7354	-0.19	+1.59
아연	2,467.00	+1.69	+7.26	USD/CAD	1.2996	-0.31	-1.10
옥수수	366.75	-2.00	-2.46	USD/BRL	4.0575	+0.21	+3.89
밀	545.25	-0.46	-1.18	USD/CNH	6.8471	+0.27	-1.44
대두	870.25	-1.78	+0.14	USD/KRW	1118.90	+0.04	-0.80
커피	100.90	-0.88	-4.81	USD/KRW NDF 1M	1116.90	+0.03	-1.4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17	-1.27	-4.52	스페인	1.378	+1.40	-6.60
한국	2.402	+2.50	-9.30	포르투갈	1.788	+2.30	-4.80
일본	0.099	+1.30	-0.20	그리스	4.174	-2.70	-6.90
독일	0.344	+1.30	+4.00	이탈리아	3.057	+7.40	-10.40